

라피트 세계 유일 앰버서더... 김성국 소믈리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김성국 조선포도호텔앤리조트 총괄 소믈리에이자 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의 앰버서더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뽀이악 지역의 와인인 '앙세이앙'을 디캔팅하자 주변이 금세 와인의 향으로 가득 찼다. 디캔팅은 숙성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와인을 디캔터라는 병에 옮기는 작업이다. 단시간에 공기과 충분히 접촉토록 해 잠재되어 있는 맛을 끌어낼 수 있다. 김 소믈리에의 준비된 앙세이앙이 2020년 빈티지란 말에 바로 디캔팅에 들어갔다. 4년이 지났지만 뽀이악 지역 특유의 강건함에 부드러운 메틀로 비율이 높다고 해도 앙세이앙의 기본 잠재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와인을 소재로 해 유명세를 떨친 일



김성국 조선포도호텔앤리조트 총괄 소믈리에.

본 만화 '신의 물방울' 첫 편은 주인공 칸자키 시즈쿠의 화려한 디캔팅 장면으로 시작한다. '와인 방울이 줄기를 이루

며 붉은 명주실처럼 똑바로 병 주둥이로 떨어져 들어간다. 만화 속의 장면을 김 소믈리에가 재현한 듯 했다. 750l 와인 한 병을 디캔터에 옮겨담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과감한데, 또 섬세했다. 하긴 고객이 찍어 짧게 올린 '로마네 콩피' 디캔팅 영상만으로도 하룻밤 사이 300만뷰가 넘게 나왔던 그 '슈퍼솜'이 김 소믈리에니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김 소믈리에가 브랜드 앰버서더로 있는 DBR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와인에 문외한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샤토 라피트 로칠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프랑스 보르도 1등급인 5대 샤토 가운데 하나인 브랜드 앰버서더는 전 세계에서 김 소믈리에 한 명 뿐이다.

앙세이앙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가 100년 만에 새로 선보인 와인이다. 대표 와인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 외에 19세기에 세컨드 와인인 '카뤼아드 드 라피트'를 내놓은 이후 처음이다. 앙세이앙의 첫 번째 빈티지인 2018년은 로칠드

가문인 라피트를 인수한 지 1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김 소믈리에의 "앙세이앙은 기존 뽀이악 지역의 강건한 와인보다는 메틀로 품종이 많이 들어가 기름진 부위의 그릴 스테이크보다는 안심 스테이크와 더 어울릴 만한 와인"이라며 "뽀뽀하기보다 부드러운 타넴으로 볼고기 등 한국 요리와도 마시기 좋다"고 설명했다. 2020 빈티지 기준으로 메틀로와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이 각각 63%, 37%다. 앙세이앙은 가문에서 6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사스키아 드 로칠드의 작품이기도 하다. 사스키아가 와인러리 경영을 맡은 이후로는 보수적인 DBR에도 그야말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김 소믈리에의 "2018년 이전만 하더라도 라피트의 포도나무는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수의 포도송이로 과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사스키아가 오너를 맡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포도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

했다.

그는 "지금은 포도밭에 야생화와 잡초까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라피트를 포함해 DBR의 와인러리들은 각각의 테루아와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정신은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BR 내에서 보르도의 혁신과 모험을 보여주는 브랜드인 '빠라디 카세이유' 역시 포도밭 주변으로 여러 생물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앙투르 드 메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산 위에 올라가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 같은 느낌이라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빠라디로 이름을 지었다.

앰버서더로서 김 소믈리에가 말하는 DBR의 원칙은 균형감이다. 포도품종이나 특정 스타일을 떠나서 말이다. 앙세이앙 역시 균형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매해 포도품종의 비율은 바뀔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압착되어버린 고독한 삶

인간은 시간의 힘에 짓눌려 소멸하지만, 고전은 세월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시간의 압력을 견뎌내며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설령 책이 불에 탄다 하더라도 고전은 불사조처럼 재 속에서 부활한다. 검은 잿더미는 거름이 돼 나무에 흡수되고, 이는 다시 고전의 뼈와 살이 될 재료로 쓰인다. 체코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보후밀 흐라발이 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고전의 저력을 보여주는 명작이다.

폐지 압축공인 주인공 한타는 소설의 제목처럼 '너무 시끄러운 고독' 속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의 동료는 말 없는 기계 한 대. 한타는 압축기와 함께 매일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폐지와 씨름한다. 한타가 압축기로 사형 선고 내리는 종이 중에는 그가 사랑해 마지 않는 책들이 켜 있다. 겉으로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시끄럽기에 그의 인생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폐지 압축공으로 일하며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한타는 자신의 업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된다. 그가 숭배하는 대상인 책('파우스트', '돈 카를로스', '히페리온',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를 파괴하는 일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한타는 고기 쓴 종이에 말라붙은 피를 빼는 파리처럼, 책에 얼굴을 파묻고 괴데, 실러, 힐데린, 니체의 사상을 게걸스럽게 빨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씩 맘에 들진 않지만, 책에 푹 빠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행하는 황홀한 경험을 낙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손에 책만 쥐어주면 행복해지는 단순한 인간, 한타에게도 존재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의 압축기 20대 분량의 일을 해내는 거대 기계



너무 시끄러운 고독

보후밀 흐라발 지음/이창실 옮김/문학동네

가 등장한 것. 수압 압축기가 있는 작업장을 찾은 한타는 기계를 보고 금세 겁에 질린다. 그는 저 거대한 압축기가 자신과 같은 높은 압축공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작업장을 둘러보던 한타는 노동자들이 손에 낀 장갑을 보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는 종이의 감촉을 더 잘 느끼고 두 손 가득 음미하기 위해 절대로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 이곳에선 그런 기쁨에, 폐지가 지닌 비길 데 없이 감각적인 매력에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책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그가 종이 더미에서 구해낸 장서들과 함께 한타는 자신의 생이 끝장났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폐지가 가득한 압축통에 자신의 몸을 넣고 녹색 버튼을 누른다. 압축통 벽에 눌러 다리와 턱이 들러붙고, 책의 단면이 한타의 늑골을 뚫고 들어온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감탄했던 탈무드의 구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144쪽,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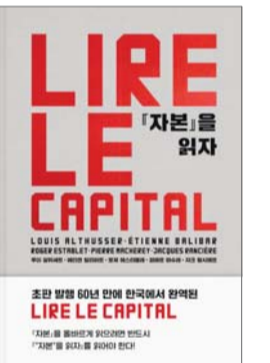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

자본을 읽자

오늘날 노동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면, 이를 가지고 마르크스가 씨름해 써낸 저작 '자본'을 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알튀세르가 지적하듯 '자본'을 그 자체로 읽는 것은 부족하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없이 '자본'을 본다면, 과거의 독자들처럼 교조화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 저자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본'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 독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자연 과학이 과학 철학의 도움을 통해 이해되듯, 마르크스의 '자본' 또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통해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에티엔 발라바르 외 4명 지음/진태원·배세진·김은주·안준범 옮김/그린비



1152쪽, 7만2000원

쓰기의 미래

2022년 12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첨단 IT 기술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맞춤법 검사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가 돼 편리함을 제공한다. 명실상부 인류의 진보라고 할 만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능들이다.

우리는 이런 도구를 통해 생산성과 효

율성 면에서 이득을 취하고, 금전적·시간적 재화를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한다. '기만적일 정도로 편리한' 이 도구들을 계속 사용하면, 인간 고유의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될까.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언어와 글쓰기의 진화, 그리고 AI가 제시하는 복잡함과 제와 기회를 조명한다.

628쪽, 2만7800원



나오미 배런 지음/배동근 옮김/북트리거

새로고침 서양 미술사 세트

저자는 예술가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흐름을 '시대와 인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은 기존 서양미술사를 나름의 관점에서 새롭게 써본다는 뜻과, 미술사를 뒤늦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들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자

기만의 방식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미학 속에서 드러낸 풍부한 인간의 모습이 곧 미술의 역사다. 미술사의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예술의 역사를 써 내려간 101인의 창조적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 시대적 과제, 창의적인 대응, 개인적인 삶의 궤적,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한다.

1534쪽, 9만9000원

이진숙 지음/둘베게



▲손흥민, 리버풀전 팀 내 최저 평점... "영향력 없었다" /사진 뉴시스
▲캠프는 다가오는데... 프로야구 FA 계약 17일째 '조용'

▲국가대표 의성군청 남자컬링팀, 토리노 동계대회 출전
▲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사망자도 선거인단 포함"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핸드볼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
▲알라딘 '한국문학의 얼굴들'에 소설가 김애란·시인 이병률